

#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직거래장터 매출 '깡충'

### 축제 5일만 작년 전체 매출 초과...농특산물 우수성 확인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 원할·반값관광 혜택 '톡톡'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의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축제 시작 5일 만에 지난해 축제의 전체 매출을 초과하며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로 9회차를 맞은 갈대축제는 우수 농특산물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강진군 농

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주관 24개 회원사가운데 18개 업체가 참여했다. 쌀, 잡곡, 생표고버섯, 떡류 등 총 62종의 품목을 판매했다.

축제 5일차 농특산물 매출은 2천705만2천원으로, 지난해 갈대축제의 전체 판매액인 2천483만4천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올해 직거래장터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감정쌀 600g을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와 스톱워치 10초 맞추기

이벤트, 무료 시음 및 시식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강진군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가입한 4개 업체가 직거래사업단에 합류, 총 24개 업체로 확대됐으며, 갈대축제 직거래장터 행사에 신규 업체 중 3개 업체가 참여해 매출을 올렸다.

강진군의 직거래 장터는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

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강진군이 진행하는 '반값관광' 혜택이 더해져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직거래장터 매출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관광객들에게는 강진을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동력이 됐다"며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리는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인기리에 운영됐다. <강진군 제공>

# ‘2024 해남미남축제’ 사흘간 24만여명 축제장 찾았다

### 농수특산물 활용 먹거리 풍성 해남배추로 김장 체험도 '성황'

2024 해남미남축제가 땅끝해남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올해 축제는 첫날 많은 비가 오면서 개막식 읍면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사흘간 연인원 24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비가 오는 첫날에도 5만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한데 이어 축제가 절정에 이른 2일에는 10만8천630명, 마지막날에도 8만여명이 찾아 지난해 못지 않은 성황을 이뤘다.

해남미남축제는 전국 최대 농어업인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풍성하게 선보이며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올해 축제장에는 해남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생육과정과 품종별 고구마,



2024 해남미남축제 '515 해남미남김치 비빔'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김장 김치를 버무려 선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희귀한 고구마꽃 등을 전시한 고구마 주제가 운영돼 하루종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해남배추를 이용한 '515 해남미남김치 비빔'과 해남쌀과 김으로 만든 '2024 떡국 나눔'은 해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배추값 폭등으로 김장담그기 체험행사와 김치 판매 부스가 유독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축제장 인근은 2만8천여점 국화로 장식한 땅끝꽃축제로 꾸며져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해남의 풍요로운 계절을 담은 해남미남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로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전국민들에게 더욱 건강한 해남의 맛과 멋을 전하는 축제를 준비해 다시 만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영광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점검

### 장세일 군수 취임 후 군정 업무 전반 파악

영광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장세일 영광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업무보고회에서는 2025년에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25년에는 영광사랑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생 에너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로 평생연금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재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취임 후 현안 업무 보고, 대형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영광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확보 방안이 강조됐고 부서별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공약사업과 핵심사업의 추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공약사업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영광을 새롭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목포시립도서관 '헤르만 헤세 작품' 인문학 강연

### 16일 도서관 4층 시청각실서 작품 읽으며 인문학적 치유

목포시립도서관은 4일 "오는 16일 오후 2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인문학 강연 '헤르만 헤세 읽기'를 통한 인문학 치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문학 치유에 대한 짧은 이론과 헤르만 헤세 작품을 함께 읽고 나누며 인문학적 치유와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인문학 강연 강연자인 안미현 교수는 독일 튀빙겐대학교 문학박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하

고,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명예교수로 다수의 독일문학작품을 번역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강연 참가 신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문의는 목포시립도서관(061-278-3324)으로 하면 된다.

목포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목포 시민들이 문학작품과 함께 치유받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완도군, 오스트리아서 해양치유 홍보·수산물 수출 협약

### 美·獨 등 바이어 14건·149억 규모 체결 성과

완도군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해양치유산업과 수산물 우수성을 알렸

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6일간의 일정으로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군 관



계자들이 수출박람회와 전남·경북 공동관 개관식등에 참가했다. <사진>

완도군은 수출박람회에서 6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중국, 대만 등 바이어와 14건, 1천80만달러(약 149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 군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으로 유일하게 세계 한상, 현지 바이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치유가 세계적인 웰니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만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완도군의 수산물 수출 업체인 (주)해정정, (유)하나물산, 완도삼영어조합법인,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유) 등은 수

출박람회에서 완도군 홍보관을 운영, 밥에 넣는 톳과 전복 차우더(수프), 전복 꼬치 등을 선보였다.

또한 전남도 홍보관에 참가한 업체를 포함한 완도군의 총 6개 업체는 미국 라티노&한인협회 이사이자 kylobal Inc. 공보미 대표와 350만달러(48억원) 상당의 3차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완도군 수산물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완도군 해외시장 개척단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회장이자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인 박종범 회장의 주선이 큰 몫을 했다.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과 관광 숙박 시설, 골프 테마파크 조성 등에 대한 총 18건의 투자 상담도 이뤄졌다.

한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 A·회장 박종범)는 1981년 설립, 현재 7개국에 15개 지회를 두고 있는 재외 동포 최대 경제 단체로 3만5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완도=윤보현기자

## 영암군농기센터,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 내년 6월까지...31대 보유·최대 2일 대여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4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사진)를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 임대는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산불조심기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

춰 실시된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로 309대가 429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를 통해 약 1천의 영농부산물을 분쇄 처리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미세먼지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영암군은 판단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 중인 31대의 파쇄기를 임대할 농업인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하면 최대 2일간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파쇄기 무상 임대로 농가의 영농부산물 처리에 보탬이 되도록 임대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파쇄기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신청과 궁금한 내용 안내는 농기계임대사업소(061-470-6618)에서 한다.

/영암=나동호기자

## 무안군, 스포츠파크 아쿠아로빅 수강 모집

### 오늘까지 신청...실내수영장서 주 2회 진행

무안군은 4일 "환경면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사진)에서 진행되는 '아쿠아로빅 강습 프로그램' 11월 수강생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매주 2회(수·금)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5일까지 전화(061-452-9898) 및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안내데스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아쿠아로빅 강습 프로그램은 모집인원보다 약 2배의 인원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군은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강미진 스포츠산업과장은 "11월 수강 프로그램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